간판보다 실속 … 적성 맞게 선택

■ 전문대 정시, 광주·전남 17개대 4,610명 모집

광주·전남 17개 전문대를 비롯한 전국 146개 전문대가 지난 주말을 기해 정시모집 전형 일정에 돌입했다. 모집 인원은 전국 8만5천567명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전남에서는 광주가 송원대학 606명, 광주보건대학 482명 등 7개 대학에서 2천163명을, 전남은 순천제일대학 663명, 나주대학 419명, 동아인재대학 268명 등 10개 대학에서 2천447명을 각각 모집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지망 수험생들이 늘고 있다. 전문대를 지원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함께 해당 학과의 취업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진은 실습하고 있는 송원대 자동차학과 학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간호·보건·관광·유아교육 경쟁률 높을 듯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가능 대학 노려볼만

올해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4년제 대학의 하향안전지원 경향이 뚜렷해지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수험생이 몰리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대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는 군별 구분 없이 원서접수가 가능해 복수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의 기회가 많은 만큼, 성적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 정시모집 지원시 고려사항과 전략을 알아본다.

◇지원시 고려사항

전문대는 실무교육 중심으로 학과가 세분돼 있고, 학과 선택이 졸업 후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해당 학과의 취업률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간호보건(간호·치위생·물리치료 등) 계열이나 사회실무(관광·통역·유아교육 등) 계열 등 인기학과도 좋지만 신설된 유망 학과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올해 전남도립대의 한옥문화산업과가 신설됐다.

4년제 대학 지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및 학과에 따른 전형방법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대학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능 성적을 2~3개 영역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부 성적 중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3학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원제한이 없는 전문대 입시의 특징을 이용해 많은 수험생들이 5~6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다. 경쟁률을 크게 의식하지 말고 2개 학과 정도는 희망 학과로 소신지원한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점수대별 지원 전략

상위권 수험생들은 한국철도대학이나 농협대학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서도 간호·의료 계열 학과들이 상위권 수험생들의 주요 지원 학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은 항상 가장 두터운 수험생층이 형성되는 점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로 간호보건 계열 중에서도 의료공학이나 의무행정 전공 등이 속하며, 실내건축을 비롯한 공업계열 학과나 제과제빵, 외식산업, 식품영양 등 실무계열을 고려할 만하다.

하위권은 복수합격에 의한 미등록 현상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1~2개 정도는 취업이 잘 되는 유망 학과에, 3~4개는 일반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수능 성적보다는 특별 전형이나 수능 이외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공략하는 것이 좋다.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국 75개 전문대 341개 학과(총정원 8천990명)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졸업한 재직경력자를 대상으로 1~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4년제 졸업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광주의 송원대(유아교육학과·마케팅정보학과), 전남의 전남과학대(화훼원예과·태권도체육계열), 전남도립대(토목환경과)는 올해 처음으로 이 과정이 신설됐다. 임상병리학과 등 3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 중인 광주보건대학은 올해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등을 추가했으며, 이번에 관광학과, 간호학과, 건설토목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에 인가를 받은 서강정보대는 총 9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인가받은 광주의 기독간호대, 동강대와 전남의 성화대, 순천청암대, 한영대 등을 포함한 총 12개 전문대 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된다.

〈도움말 : 진학사 윤동수 본부장〉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학과별 예상 성적 분포도

계열	순위	등급	모집단위
간호 및 보건계열	1순위	2~2.5등급 이내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위생, 치기공, 방사선, 작업치료 등
	2순위	2.5~3등급 이내	안경광학, 의료공학, 보건위생, 보건행정, 의무행정 등
	3순위	3~3.5등급 이내	피부미용, 뷰티 디자인, 노인 및 가족복지 등
가정계열	1순위	2~2.5등급 이내	호텔조리제빵, 호텔외식산업, 제과 데코레이션 등
	2순위	3~4등급 이내	식품영양, 식 음료 조리등
	3순위	3.5~4등급 이내	패션섬유, 의상디자인, 전통복식 등
	4순위	3.5~4.5등급 이내	여성교양, 여성과학 등
공업계열	1순위	2~2.5등급 이내	실내건축, 건축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2순위	3~3.5등급 이내	방송기술제작, 디지털영상, 게임 애니매이션 등
	3순위	3~4등급 이내	시각디자인, 보석디자인, 표면장식디자인 등
	4순위	4~5등급 이내	자동화 기계, 정보통신, 전자공학 등
	5순위	4.5~5.5등급 이내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 정보, 컴퓨터그래픽 등
사회실무계열	1순위	2.5~3등급 이내	통역(영어. 일어. 중국어), 세무회계 등
	2순위	3~4등급 이내	유아교육, 유아특수치료, 아동교육 상담 등
	3순위	3.5~4.5등급 이내	항공관광, 호텔관광 마케팅, 호텔경영, 레저관광 등
	4순위	4~5등급 이내	증권금융, 신문방송, 유통경영
농업수산계열	1순위	3 ~4등급 이내	동물자원, 애완동물, 애견미용 등
	2순위	5.5~6.5등급 이내	녹지조경, 식량자원, 생물배양 등
예체능계열	1순위	3 ~ 4등급 이내	광고디자인, 가구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2순위	3.5~4.5등급 이내 (실기시 6.5~7.5 등급 이내)	연극영화, 방송연예, 문예창작, 실용음악 등
	3순위	면접 및 실기 6.5~7.5등급 이내	모델, 무용, 모델이벤트 등
	4순위	실기 6.5~7.5등급 이내	생활스포츠, 사회체육,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스포츠
	5순위	4.5~5.5등급 이내	아동미술, 전통공연, 응용회화 등

방송통신대, 평생 교육을 꿈꾼다

직장인들 자기 계발·재교육 장으로 각광

온·오프라인 교육 … 편입생 갈수록 늘어

방송통신대 광주·전남지역대학(학장 김성수)이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뒤 다른 분야의 전공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의 편입이 늘고 있다.

15년 전인 1993년 31%에 불과하던 편입생 비율이 2000년 들어 신입생 수를 넘어선 뒤, 올해 역시 편입생 비율이 58.6%로 재교육이나 자기계발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유일 국립 원격대학

지난 1972년 개교한 뒤 방송통신대를 거쳐간 졸업생은 무려 43만명. 방송통신대의 장점은 텔레비전이나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강의다. 언제든지 강의를 다시 볼 수 있어 반복학습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원격 강의 뿐 아니라 광주 광산구의 지역대학과 전남지역 목포, 여수, 해남, 순천 등 4곳의 학습관에서 출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등록금도 방송통신대의 인기 비결 중 하나다.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40만원으로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사이버대학의 5분의1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방송통신대 졸업생 중 전공을 바꿔 다시 방송통신대에 편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 매년 3천여명이 방송통신대에 재편입해 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튜터링으로 단점 보완

원격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수와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 없는 점이다. 140명의 교수가 18만명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는 튜터링과 멘토링을 이용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발된 튜터(개인교사)가 교수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며 상담도 맞고 있다.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월 20시간 가량을 튜터에게 도움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튜터링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가량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 튜터, 학과 튜터, 사이버 튜터 등 현재 394명의 튜터가 활동 중이며, 대학 측은 2010년까지 튜터의 수를 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9학년도 모집 인원은 편입생을 포함해 16만1천386명. 무시험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생은 고교 성적 또는 수능 성적을, 편입생은 대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모집정원의 10%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뽑는 연장자 특별전형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하는 특별전형도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방송통신대 광주·전남 지역대학 전경.

청소년 철학, 영어로 만난다

전남대 BK21 교육사업단

내달부터 철학교실 열어

전남대 BK21 철학교육사업단과 철학연구교육센터는 '2008년 겨울 청소년철학교실'을 개최한다.

내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주 1회씩 총 6~8차례 진행되는 이번 철학교실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남대 철학과 강사, 박사과정 연구원 등이 참여해 5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강의별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마천의 사기 읽기(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생각하는 나의 탄생-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읽기(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그리스 문화와 자유의 정신(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영어로 만나는 철학(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뻔~한 예술은 가라! 현대미술과 만나기(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등이다.

강의료는 3만~4만원이며, 청소년과 함께 오는 학부모 및 교사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주제별로 참가 인원과 참가비, 대상, 신청 기간 등이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cafe.naver.com/youthphilo)나 전화(010-3701-8664)로 하면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